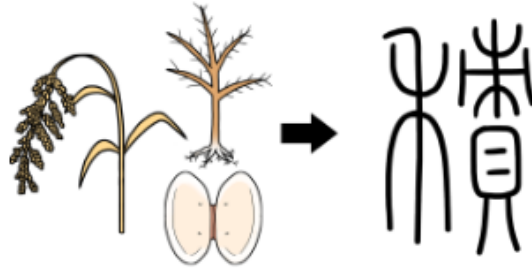


회의문자①



積

쌓을 적

積자는 '쌓이다'나 '저축'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積자는 禾(벼 화)자와 責(빚 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責자는 가시가 돋친 돈을 뜻하는 글자로 '빚'이라는 뜻이 있다. 여기에 禾자가 결합한 積자는 빚이 계속 쌓이고 누적되듯이 빚단이 포개진다는 뜻이었다. 다만 지금의 積자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누적되다'나 '쌓이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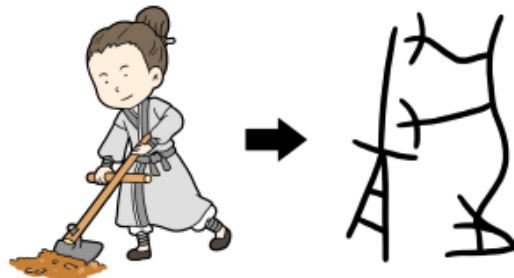
積

소전

積

해서

회의문자①



籍

문서 적

籍자는 '문서'나 '호적'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籍자는 竹(대나무 죽)자와 籍(친경할 적)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籍자는 본래 백성들의 호적이나 기여도, 인력이등과 관련된 내용을 적어 놓았던 문서를 뜻했었다. 여기에는 주로 토지를 경작하던 노비들의 명부와 교대시간에 관한

것들이 적혀있었는데, 갑골문에서는 이것을 농기구로 밭을 갈고 있는 사람으로 𥝵 표현했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명부에 기록됐던 사람의 수가 많아지자 여기에 '오래되다'라는 뜻을 가진 𥝵(옛 석)자가 더해지게 되었다. 이것이 籍자이다. 이후 여기에 竹자가 더해지면서 죽간(竹簡)으로 만들어진 '문서'나 '호적'을 뜻하는 籍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𥝵

갑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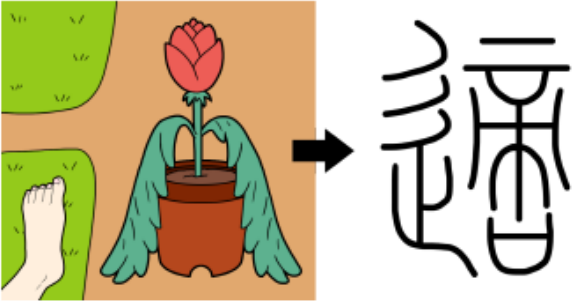
籍

소전

籍

해서

형성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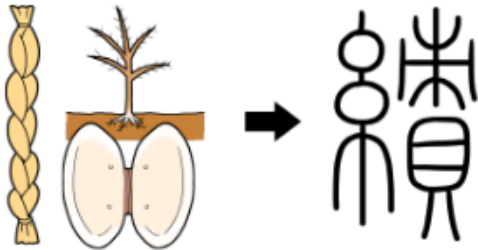
適

맞을 적

適자는 '맞다'나 '마땅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適자는 辵(쉬엄쉬엄 갈 착)자와 啇(밀동적)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啇자는 화초 아래에 입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適자는 본래 '길을 골라가다'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여러 갈래의 길 중에 내가 가야 할 적합한 길을 고른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適자는 '맞다'나 '마땅하다'와 같이 '적합하다'라는 뜻만 남아있다.

	
소전	해서

형성문자①



績

길쌈 적

績자는 '길쌈하다'나 '깁다', '삼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績자는 糸(가는 실 사)자와 責(꾸짖을 책)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責자는 '꾸짖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책→적'으로의 발음역할을 한다. 績자의 본래 '삼다'란 뜻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삼다'란 물레 따위로 실을 뽑아내는 것을 말한다. 누에고치를 삶아 실을 뽑고 이를 다시 물레에 돌려 실타래를 만드는 과정은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績자는 '삼다'를 뜻했다가 후에 어떠한 노력에 따른 '성과'나 '공적'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賊

도둑 적

賊자는 '도둑'이나 '역적'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賊자는 貝(조개 패)자와 戎(병기 용)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戎자는 갑옷과 창을 함께 그린 것으로 모든 병기를 망라하는 글자이다. 그러나 금문에 나온 賊자를 보면 貝자와 戈(창 과)자, 人(사람 인)자가 賊¹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재물 앞에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것으로 무력으로 재물을 강탈했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賊자는 무기로 위협하며 재물을 강탈하는 '도둑'이나 '역적'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賊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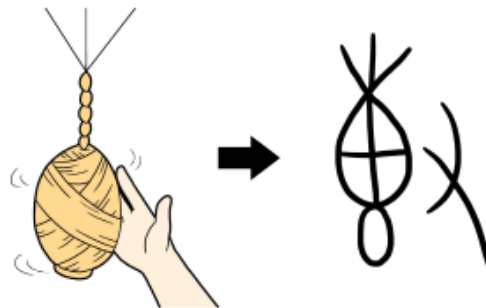
賊

소전

賊

해서

회의문자①



專

오로지
전

專자는 '오로지'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專자는 寸(마디 촌)자와 '방추(紡錘)'를 그린 車²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방추는 누에고치나 목화에서 뽑은 실을 감아두던 도구를 말한다. 專자의 갑골문을 보면 이 방추를 손으로 돌리는 專³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專자는 이렇게 방추를 돌리는 모습에서 '구르다'나 '돌다'라는 뜻을 표현한 글자였다. 專자는 후에 한쪽으로만 도는 방추에 비유해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한다는 의미에서 '오로지'나 '오직 한 곳으로'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專자의 본래 의미가 바뀌면서 후에 여기에 車(수레 차)자를 결합한 轉(구를 전)자가 '구르다'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專

갑골문

專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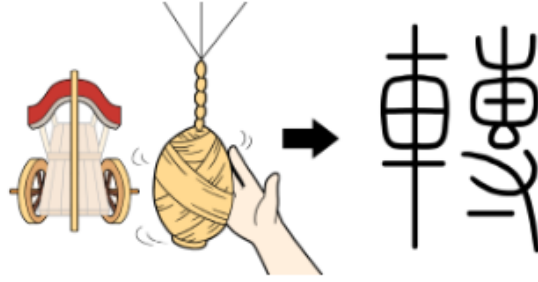
專

소전

專

해서

회의문자①



轉

구를 전:

轉자는 '구르다'나 '회전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轉자는 車(수레 거)자와 專(오로지 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專자는 실을 감는 용도인 방추(紡錘)를 돌리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는 專자가 '회전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專자가 오로지 한곳으로만 돈다 하여 '오로지'라는 뜻을 갖게 되자 여기에 車자가 더한 轉자가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수레는 바퀴를 굴러 움직이는 것이니 오히려 본래의 의미를 더욱 잘 묘사하게 되었다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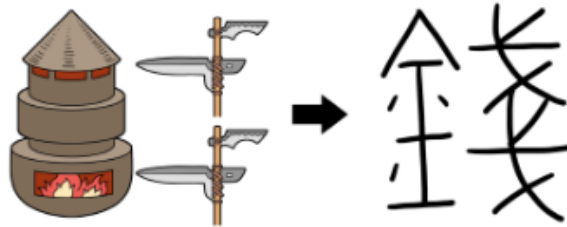
轉

소전

轉

해서

회의문자①



錢

돈 전:

錢자는 '돈'이나 '화폐', '동전'을 뜻하는 글자이다. 錢자는 金(쇠 금)자와 戔(쌓일 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錢자에 쓰인 戔(쌓일 전)자는 여러 개의 창을 쌓아놓은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쌓이다'라는 뜻이 있다. 錢자는 본래 동전으로 만들어진 엽전(葉錢)을 뜻하던 글자였다. 동전의 역사는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이후부터 시작된다. 통일 이후 진시황은 반량전(半兩錢)을 주조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둥근 모양의 동전(銅錢)이었다. 엽전은 구멍에 줄을 꿰어서 묶음으로 가지고 다녔던 것이니 '쌓이다'라는 뜻을 가진 戔자는 의미 겸 발음을 함께 전달하고 있다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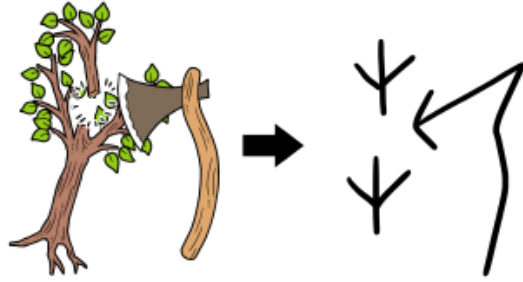
錢

소전

錢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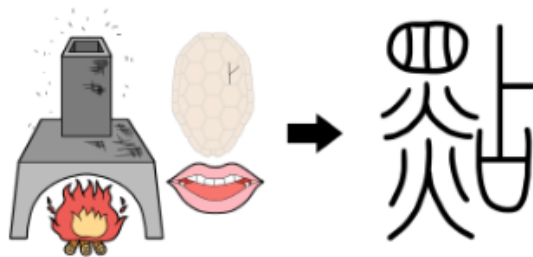
折

꺾을 절

折자는 '꺾다'나 '깎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折자는 手(손 수)자와 斤(도끼 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折자는 手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갑골문에 나온 折자를 보면 도끼로 나무를 두 동강 낸  모습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折자는 이렇게 나무를 동강 낸 모습으로 그려져 '꺾다'나 '부러지다'라는 뜻을 표현했었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잘린 나무가 手자로 바뀌면서 본래의 의미를 유추하기 어렵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點

점 점(:)

點자는 '점'이나 '얼룩', '불붙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點자는 黑(검을 흑)자와 占(점치다 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占자는 거북의 배딱지(腹甲)에 나온 점괘를 그린 것이다. 點자는 본래 '불붙이다'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아궁이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불쏘시개가 필요했었을 것이다. 그래서 點자에 쓰인 占자는 발음 외에도 불쏘시개 모양을 표현하고 있다. 點자는 때로는 '점'이나 '얼룩'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 이는 재가 날려 얼룩이 묻거나 구멍이 났다는 뜻이다.

	
소전	해서